



광주 동구 황금동 키넥트(KINECT) 게임방에서 한 여성이 '키넥트 스포츠' 복싱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에 등장한 키넥트 게임방 체험해 보니...

# 화면 속 아바타가 내 마음대로~ 온몸으로 즐기는 스포츠 게임

“온몸으로 즐겨라.”

1990년대 후반 오락실에서는 몸으로 즐기는 DDR(Dance Dance Revolution)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키넥트(KINECT)에 다시 한번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MS Xbox 360용 동작인식게임인 키넥트는 지난달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판매되며 기네스북에 가장 빨리 팔린 전자제품으로 등재

됐다. 그 인기에 편승해 광주에도 지난 2월 최초로 키넥트 게임방이 등장했다.

지난 30일 오후 광주 동구 황금동 키넥트 게임방을 찾았다. 이곳은 Wii 게임기 8대와 키넥트 게임기 3대를 갖추고 있다.

키넥트는 중앙 RGB 카메라와 양쪽 2대의 카메라가 신체 움직임을 감지한다.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까지 감지해 3차원 데이터를 전송하고 게임에 적용, 컨트롤러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탁구와 비치발라볼, 풋볼, 볼링, 100m 달리기, 복싱 등을 즐길 수 있는 키넥트 스포츠를 체험해 봤다.

복싱은 화면 속의 수많은 관중의 환호와 함께 시작된다. 링벨 소리와 함께 상대방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잭을 날린다. 좌우로 스텝을 밟으며 날아오는 상대방의 펀치를 가드도 막아낸다. 스트레이트를 뺏자 상대방이 맞고 힘없이 쓰러진다.

100m 달리기는 실제 달리기처럼 열심히

뛰어야만 게임이 진행된다.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올려야만 카메라가 동작 인식을 해 화면 속의 아바타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키넥트에 대충이란 없다. 열심히 뛰고 빠르게 움직여야만 이길 수 있다. 게임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한 것처럼 호흡이 가빠져 온다.

키넥트는 로딩 이후 게임 선택에서부터 시작까지 온몸이 인터페이스가 된다. 손을 허공에 휘둘러 메뉴를 선택하고 움직이는 방식은 마치 지난 2002년 개봉한 탐 크루즈 주연의 '마이내러티브 리포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체험해본 키넥트는 기대 이상이다. 몸 전체를 스캔하는 속도는 물론 반응 속도 역시 빠르다.

이곳 대표 박하영(27)씨는 “지난 2009년부터 Wii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 키넥트를 처음 도입했다”며 “입소문을 타면서 키넥트를 즐기러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태양전지 역할하는 인조 나뭇잎 개발

햇빛과 물을 연료로 바꾸는 나뭇잎의 광합성 기능을 고스란히 모방하는 인조 나뭇잎이 개발돼 개발도상국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디스커버리 채널이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개발, 미국 화학협회 회의에서 공개한 인조 나

뭇잎은 물통에 실러곤 칩 하나만 담긴 간단한 장치에 불과하지만 햇빛이 나지 않을 때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태양 에너지가 잎 속의 전자를 해방시키고 이에 따라 수분이 분해돼 수소와 산소로 바뀔으로써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인조 나뭇잎은 이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연구진은 “식물의 잎에는 전선만 없을 뿐 전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면서 광합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전지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촉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만든 장치에서 햇빛은 일반적인 태양 전지판 재료와 같은 실리콘 물질에 포착되지만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선과 연결되는 대신 촉매로 코팅이 된 실리콘이 물에 담겨져 전선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태양전지

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실용적이고 값싼 소재를 발견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개발한 장치의 효율 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태양열 집열판과 맞먹어 지붕 위에 얹으면 가정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의 최종 목표는 인도나 중국 농촌 같은 개발도상 지역 주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이런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물이 극도로 순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스마트폰 출시 눈앞인데 가격 결정 못해

# 이통사-제조사, 공정위 눈치보나

국내의 전략 스마트폰들이 잇따라 4월 출시를 예고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4월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중 출고가가 확정된 기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초 '아트릭스'를 출시하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조차 아직 이통사와 출고가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토로라는 전날 태블릿PC '쥘' 발표회에서도 쥘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만 밝히고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니에릭슨의 새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아크'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지만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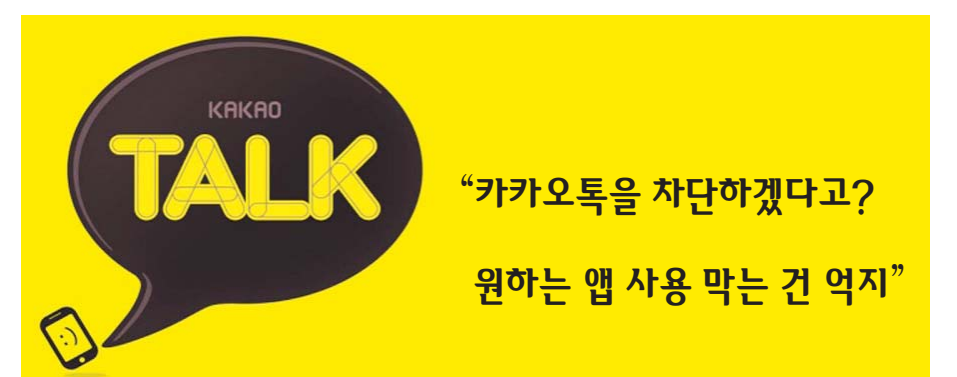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다음 달 출시가 유력한 '갤럭시 S 2'의 출고가에 대해 “현재는 이통사와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LG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내놓을 신형 '옵티머스' 시리즈의 가격을 아직 결정 못 했다.

제조사들은 “출고가는 제품을 유통하는 이통사가 정한다”고 주장하고, 이통사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가 정한다”고 맞서는 등 출고가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도 동일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가격 책정 과정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통신비 및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분위기 때문에 서로 눈치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을 주도하는 애플이 최신작 아이폰2를 기존 제품과 같은 가격에 내놓는 바람에 경쟁사들의 가격 고민이 깊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4월 출시 제품 대부분이 고급형이어서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이통사 데이터 과부하 주장에 이용자 '발끈'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용 무료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이동통신사에 데이터 과부하를 일으키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30일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문자 유형의 앱이 이통사의 데이터망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통한 메시지 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응하는 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카카오톡 '차단' 또는 '유료화'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T는 “카카오톡과 같은 앱이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차단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카카오톡으로 오가는 메시지의 양보다는 사용자들끼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신호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은 “이통사가 카카오톡을 유료화하려 한다”고 받아들이면서 “데이터 사용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원하는 앱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억지”,

“이런 앱 때문에 스마트폰을 샀는데 무슨 소리냐”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톡은 1000만 가입자 돌파를 앞둔 인기 앱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 29일 기준으로 1000만을 넘었으니 해외 사용자(100만가량)나 다른 스마트 기기 사용자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상당수가 카카오톡을 쓴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카카오톡 측은 데이터 과부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톡보다 먼저 나온 트위터나 문자 메시지를 많이 쓰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이통사들이 정말 신경을 쓰는 부분은 트래픽이 아니라 문자나 음성 서비스를 통한 매출 잠식 가능성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스타박스 24시 사우나·찜질방

##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박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 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 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박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